

T V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20주년 연중기획 <김동 20년 회담 20년>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발레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50 신년기획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신년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0 55 일일연속극 <복룡의 연인>(재)	4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비틀말 고구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11 30 일일시트콤 <몽양 내 사랑>(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수목드라마 <프리지던트>(재)	12 00 MBC 뉴스 25 그린실버 고행이 좋다스페셜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00 KBS 골격선 <결혼해주세요>(재)		1 1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육룡이 불꽃>(재)	30 한국의 숲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2 20 경제 매거진(재)	00 SBS 뉴스 10 드라마스페셜 <무명>
00 세계는 지금(재) 10 신년기획 <남독의 발견>(재)	00 KBS 뉴스타임 05 호기심 대장 백이(재) 35 후포소 잃어버린 숲(재)	3 10 키즈사이언스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스화제2>	00 TV 유치원 30 최강합체 미스마스터	4 00 MBC 뉴스 10 뽀뽀뽀 아이즈 40 행복이 음악대	00 레츠고 MBA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방방곡곡 해피트레인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콘서트 헬륨투기요리
00 6시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메거진 50 광주MBC 신년특집 <유배 3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생방송 시사메거진 <프리즘>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양 내 사랑>	10 시사타치 따따뽀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우리아 동해아>	35 KBS 뉴스타임 <광주전남> 50 비타민	8 15 일일연속극 <복룡의 연인> 55 MBC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프리지던트>	9 50 MBC 스포츠 뉴스 55 수목미니시리즈 <마이 프린세스>	55 드라마스페셜 <싸인>
00 신년기획 <환경스페셜 50 세계는 지금>		10	
00 KBS 뉴스라인 40 정점토론	05 추적 60분	11 05 황금아장	15 테마스페셜
25 KBS 뉴스 35 KBS 특선 아시아 <문화 제1편>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특강	12 20 MBC 뉴스 24 35 개그쇼 난생처음	10 나이트라인 30 TV특강 행복플러스 <양친석 2장>

‘아프리카의 눈물’ 2부 7일부터 방영

MBC, 기후변화 고통 진단

연말 시상식과 특집 프로그램으로 3주동안 방송되지 않았던 MBC 특집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눈물’이 7일부터 다시 방송된다.

MBC는 7일 밤 11시5분 ‘아프리카의 눈물’의 2부인 ‘사하라의 목시록’ 편을 방송할 예정이며 14일과 21일 같은 시간에 3부 ‘킬리만자로의 눈물’과 마지막편인 에필로그 ‘검은 눈물의 시간 307일’을 각각 내보낸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5부작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눈물’은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고통을 돌아보고 지구적 환경 문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3일과 10일 방송된 프롤로그와 1부 ‘오모계곡의 붉은 바람’ 편은 각각 10.1%와 11.3%의 시청률로 시청률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다.

2부 ‘사하라의 목시록’에서는 사하라 남단에 사는 유목민 풀라니족이 소개된다. 제작진은 남서 미얀마의 ‘케레울’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새하얀 이를 미의 첫 조건으로 삼고 있는 이곳 여성들을 소개한다.



〈다큐 ‘아프리카의 눈물’ 내레이션 맡은 현빈〉

또 기후변화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막 코끼리의 대장정과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는 사하라 남부 국가 니제르의 고통도 보여준다.

제작진은 ‘아프리카의 눈물’의 영화판도 오는 3월 개봉할 계획이다. 영화판은 방송에서 편집된 일부 장면을 포함해 재편집된 뒤 개봉되며 방송판과 마찬가지로 현빈이 내레이션을 맡을 예정이다.

제4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유망주들의 결승전

초등 최강부 결승전 1번(1~15)

白 김지승 4단 黑 홍정진 4단
(양천초 6) (송학초 6)

회장배 바둑대회에서는 바둑을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특히 어린이부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어린이만 4백여명이나 참가했으며 초등고등부와 여학생부는 물론이고 초등 각학년부와 유단자부 최강부로 나뉘어 치열한 분위기가 속에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린 경합을 벌였다.

이 바둑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강자들만 참가한 최강자들의 결승전이다. 이번에는 특히 우승자에 한해서 전국체전의 대표선발을 겸했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 더욱 긴장되고 열기가 뜨거웠다.

특을 든 홍정진군은 이지역 초등학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입상경력을 쌓아왔고 전국체전의 대표선수로도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백을 든 김지승군은 일찌감치 서울에 유학하여 양천구의 대일바둑도장에서 본격적으로 바둑수업을 받고있는 유망주다. 보통 때는 지방시합에 잘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전국체전의 대표선발을 겸하고 있어 특별히 참가했으며 그런만큼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다. 초등부지만 최강부의 결승전이라면 만만치않은 실력이다. 흑 15까지 포석의 모범답안같은 출발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브라운관도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브라운관에서 뜨겁다.

4일 EBS에 따르면 이날 0시 첫 방송된 ‘하버드 특강-정의’의 시청률은 AGB닐슨 기준 전국 0.90%, 수도권 1.15%로 집계됐다. 이는 평일 EBS의 동시간대 시청률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EBS 관계자는 “자정 시간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높은 시청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 후 트위터에는 강의 내용에 대한 호평이 잇따랐다. ‘노트 필기를 해가며 본 건 처음이다’ ‘인문철학 강의지만 너무 재미있다’ ‘마이를 샌델 교수의 강의도 놀라웠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뜨거웠다’ 등의 트윗이 수백건 올라왔다. EBS는 시청자들의 호응을 반영해 프로그램 재방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DVD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버드특강-정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대 강의 실황을 담은 12부작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수요일 밤 12시 방송된다.

/연협뉴스

EBS		
06:00 세계테마기행 <초록과 손수의 땅 라오스>	09:35 클로이의 오솔웃장 <수목의 숲의 땅 라오스>	15:2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남아프리카공화국>
06:40 한국기행<남원>	09:50 한글거지 치료	15:4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남아프리카공화국>
07:00 다큐 인생 2막 <집배원이 된 남자>	10:00 EBS 10시 뉴스	20:30 EBS 뉴스
07:30 땀과 눈물 신나는 아침 <집배원이 된 남자>	10:10 60분-부모	20:45 지식채널e
08:00 땀과 눈물 신나는 아침 <집배원이 된 남자>	11:10 최고의 요리비결 <스타셰프 임정식의 유쾌한 창작 레시피>	20:50 세계테마기행 <대자연의 매혹 서호주>
08:20 카툰극장 <신년특집>	11:40 생방송 교육현장 <수업의 교육현장>	21:30 한국기행 <서울>
08: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2:30 TV평생대학	21:50 다큐프라임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08:45 뽀뽀대장 뽀뽀이	13:00 극한직업 <사진부 기자>	22:40 극한 직업
09:00 이기공룡 버디	13:50 수목드라마 <프리지던트>	23:10 디큐 10+ <특선>
09:15 특목박사 에디	14:2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마일의 심장 과테말라>	00:00 지식채널e <재>
09:25 다류동화 달팽이	15:0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00:05 신년기획 <하버드 특강> <정의>
		00:4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남아프리카공화국>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It sure looks that way 보아하니 그럴 것 같네요</p> <p>A : I'm afraid the weather is about to turn bad. B : Yes. It sure looks that way. A : I wish it could have waited until I got home. B : I know. Traffic is terrible from all of the accidents. A :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get better public transportation.</p> <p>A : 날씨가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입니다. B : 그래요, 보아하니 그럴 것 같네요. A :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좋았으면 좋겠는데. B : 그러죠, 갖가지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교통은 엉망이 되니까요. A : 대중교통이 좀 더 좋아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p> <p>* turn bad = 악화되다 * that way = 그런 식으로 * I'm afraid ~ = 유감스럽게도 * I'm afraid not. = 아쉽지만 아닙니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彼女は日本語の先生だそうです。 그녀는 일본어 선생이랍니다</p> <p>A : あの人はだれですか。日本語が上手ですね。 B : 彼女は日本語の先生だそうです。 A : それで日本語がペラペラですね。 B : ええ、顔も綺麗で、声も綺麗です。 学生達に一番人気があるそうです。</p> <p>A : 저 사람은 누구 일까요. 일본어를 잘 하는 군요. B : 그녀는 일본어 선생님이랍니다. A : 그래서 일본어가 유창하군요. B : 예,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p> <p>[단어정리] 声 목소리 一番 가장, 제일 ぺらぺら (외국어 따위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 顔 얼굴</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穿小鞋 chuān xiǎoxié 작은 신발을 신겨 괴롭히다</p> <p>작은 신발(小鞋)을 신다(穿). 진족(纏足)이라고 들어보셨죠. 纏足(chánzú 진족)은 중국에서 10세기 경 5대 10국시기의 한 황제가 작은 발의 미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궁녀들의 발을 모두 작게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중국에서 천여년간 유지되어온 악습입니다.</p> <p>발에 맞지 않는 작은 신발 신으면 정말 괴롭지요. 그렇듯 穿小鞋은 억지로 괴롭힘을 주는 것,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보복행위를 가하는 것 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p> <p>신발을 살 때 가끔씩 저녁에 사라고 하는데 하룻동안의 시간 중 저녁시간에 발의 크기가 가장 커진다고 합니다. 저녁에 신어보고 판단해야지 아침 일찍 혹은 낮시간에 신발 사면 穿小鞋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p> <p>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兵死地也(병사지야) 병사 병, 죽을 사, 땅 지, 어조사 야</p> <p>병사지야(兵死地也)는 전쟁에서 사람은 죽는다는 말로,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p> <p>조(趙)나라 때 영파와 인상여에 비견할 만한 인물인 조사(趙奢)가 있었다. 조나라 왕은 진나라와의 결전에 조사의 아들 조괄(趙括)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자 하였다.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에 대해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조사는 “전쟁에서 사람은 죽는 것인데[兵死地也] 병법 이론만 믿고 겁 없이 행동하니 만일 장수가 되어 병법을 사용하면 조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조나라 왕은 조괄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그 결과 조괄은 무태고고 병법 이론을 사용하여 참패하였고, 조나라는 위태로워졌다.</p> <p>〈출전 『사기(史記)』 <영파인상여열전(廉頗趙奢列傳)>〉 * 급수 : 한자능력검정 5급 6급 7급 3급</p> <p>〈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p>